

배포일	2015. 12. 16.(수)	배포담당	홍보팀
담당부서	발전기금 기획팀	문의	변영현(02-871-1621)

제목: 나노기계공학의 선두주자 최만수 교수 서울대 '신임교수 연구정착기금' 1억원 쾌척

- 최근 경암학술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최만수 교수가 1억원을 '신임교수 연구정착기금'으로 쾌척했다.
- 12월 16일(수) 총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, 최만수 교수를 비롯해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했다.
- 성낙인 총장은 "최만수 교수님은 나노기계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공학자로 독창적인 연구 영역을 확립하시며 우리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고 계신 분"이며 "교수님의 학문 탐구정신과 더불어 나눔과 배려의 모습은 학교와 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"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이어 최만수 교수는 "학자로서 영광스러운 경암학술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"고 소감을 밝힌 뒤 "현재의 성과는 국가의 지원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돌려주는 기부는 당연한 도리이며, 이번 기부를 통해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하여 큰 성과를 내는 데 꼭 필요한 '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제도'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- 최만수 교수는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한 3차원 나노입자 조립 기술과 그를 응용한 소자를 개발해 왔으며, 지난해에는 나노크랙을 이용한 초고감도 센서를 발표한 바 있다. 또한 나노기술을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태양전지와 연료전지에 적용하는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을 이끌고 있다.
- 한국공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인 최만수 교수는 2014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에어로졸기구(IARA) 회장에 선출되었으며, 2004년부터 에어로졸 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Journal of Aerosol Science의 편집장을 맡아오고 있다. 최 교수는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2012년 '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'을 수상한 바 있다.

(사진설명: 협약서 서명 후 성낙인 총장(左)과 최만수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)